

# “공식 학사일정” vs “사실상 자율권 침해”

## 우리아이들 PM 너무 위험하게 탄다

헬멧 안 쓰고 한대에 두명 이상 타 과속 예사  
무면허 운전한 만 16세 미만 149명 적발되기도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도외답사 비용·전원 참여’ 시골 학생 “비용 부담에 미 참여시 각종 불이익 우려” 반발 학교 “대체 프로그램 운영… 비용 추가 지원 등 고민”

하지만 개인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데도 무조건적인 참여를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학과별 계획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2박 3일 기준 1인 예상 경비가 40~50만원까지 책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 지원금 1인당 10만원을 보태도 30~40만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이 1~3학년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도외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학생들의 비용 부담이 불가피한데도 사실상 ‘전원 참여’를 강요하고 있다는 반발이 일면서 대학 측이 고심하고 있다.

여 대상은 모든 학과 1~3학년과 교수, 조교 등이다. 학생 344명을 비롯해 대학 구성원 약 400명이 오는 5월 10일부터 12일까지 2박3일간의 일정으로 답사에 나선다.

2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대 교육대학은 올해 4년만에 ‘도외 현장답사’를 계획했다. 코로나19로 인해 2019년을 마지막으로 멈췄다 올해 재개하는 것이다. 도외 답사는 교육대학이 2000년도 후반부터 해마다 ‘비교과 교육과정’으로 편성해 이어 오는 프로그램이다. 참

도외 답사는 예비교원으로서의 자질 함양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초등 교원의 경우 학교 현장에서 수학적, 현장학습 등을 기획하고 진행하게 되는데 도외답사를 통해 이러한 실전 경험을 기를 수 있다는 게 대학 측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학생들은 과 특성에 맞춰 답사 지역을 정하고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등 모든 절차를 맡고 있다.

그런데도 일부 학과에선 학교 공식 행사인 도외 답사 등의 참여도를 따져 장학금, 해외연수 프로그램 추천 등의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반발이 커진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자율권 침해라는 비판도 나온다.

제주대 교육대학의 한 학생은 “30~40만원은 누군가에게 한 달 생활비가 될 수도, 한 달간 힘들게 번 아르바이트비가 될 수도 있는 금액”이라며 “고등학교 수학여행도

이렇게 전원 참여를 강요하진 않는다. 학생 반발이 높음에도 학교는 추가 예산 지원, 자율적 참여 등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제주대 교육대학 관계자는 “도외 답사는 공식 학사 일정이고 교육과정의 일환이기 때문에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면서 “다만 경제적 상황과 신체적 문제 등으로 참여가 어려운 학생을 위해선 도내 문화체험과 같은 대체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교외 답사는 단순 여행이 아닌 교육적인 측면에서 생각해야 한다”면서도 “물가 인상 등으로 인해 학생들이 비용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점을 고려해 1인당 13~14만원까지 지원금을 올리고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 덤프트럭과 부딪힌 렌터카 화재로 전소되고 2명 부상



미세먼지로 뒤덮인 제주시 미세먼지 매우나쁨을 보인 29일 제주시 용담해안도로에서 바라 본 제주시가지가 희미하게 보인다. 강희만기자

덤프트럭과 렌터카 간 교통사고로 렌터카 차량에 불이 나 66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29일 제주서부경찰서와 서부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3시15분쯤 제주시 애월읍 한 도로에서 40대 A씨가 몰던 덤프트럭과 30대 B씨가 몰던 BMW 렌터카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BMW 차량이 전도되며 화재가 발생했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5분 만에 진화됐다.

인명 피해도 발생했다. BMW 차량에 타고 있던 B씨와 동승자가 부상을 입고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와 함께 BMW 차량이 화재로 전소되며 소방서 추산 66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BMW 차량 후미에서 주행하던 A씨 덤프트럭이 추월을 하는 과정에서 B씨의 차량 옆면을 충격해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 “판·검사에게 잘 부탁할게” 거액 가로챈 40대 구속기소

판·검사에게 부탁해 사건을 잘 해결하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변호사법 위

반과 횡령, 사기 등의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12월 사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총 67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판·검사에게 부탁해 사건을 잘 해결하겠다

고 속여 로비나 합금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피해자가 맡겨 둔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해 몰래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를 벌여 A씨를 법정에 세웠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 “총파업 따른 급식·돌봄 공백 최소화”

교육청 대체급식 등 대책마련

전국학교비정규직 제주연대회의가 31일 신학기 총파업을 벌일 예정인 가운데 제주도교육청이 각급 학교 급식·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29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제주연대회의의 총파업 예고 이후 ‘파업 대응 상황실’을 꾸렸고 지난 24일 각 학교에 파업 대응 매뉴얼을 안내했다. 파업 대응 매뉴얼에는 단계별 대응, 학교급식·돌봄·특수·유아교육 등 취약분야 집중 대응, 부당노동행위 방지 등 준수 사항, 보고 체계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파업 기간 동안 도교육청 상황실에서는 급식, 돌봄교실 등의 운영 여부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교육 활동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학교급식인 경우 파업 참여율에 따라 식단 간소화, 빵·우유 등 간편식 제공 등 방안을 마련하고 돌봄, 유치원 방과 후 과정, 특수교육 등에서 발생하는 공백은 학교 내 교직원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또한 가정통신문, 문자 등을 통해 신속히 파업 내용과 협조 사항을 학부모들에게 사전 안내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학교 현장의 혼란을 줄일 방침이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 투망작업하던 선원 바다에 추락해 숨져

제주해상에서 조업을 하던 선원이 바다로 추락해 숨졌다.

29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6분쯤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약 114km 해상에서 조업을 하던 제주 선적 29t급 근해자망어선 A호에서 50대 선원 B씨가 투망작업을 하다 바다로 추락했다. B씨는 해경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상민기자

허가번호 18-제주2022-20-03

## 감귤요목

유라조생	2~3년생
천혜향	3~5년생
황금향	3~5년생
한라봉	3~6년생
남진해	3~4년생
성전온주	3년생
하레조생	3년생
탈라봉	3년생
윈터프린스	3년생
감평	3년생
진지향	3년생
빙자묘	1년생

### 한림종묘사

010-8820-5769  
종자관리사 010-3690-2453

## 감귤 신품종 분양

### 2023년 봄출하예정 묘목 분양

**만감류**  
레드향, 천혜향(특호), 황금향, 윈터프린스, 한라봉, 사라향(천혜향신품종), 탐나는봉, 카라향, 탐빛1호, 명유자, 아미나스, 레몬, 맹자(1년생 300원, 2년생 400원)

**조생**  
유라조생, 하레조생, 궁천, 오하라배니(궁천변이)  
[유라, 천혜향, 레드향, 황금향 2년생 본당 1만원 특별분양 선착순]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근도로변)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 자원종묘

대표 : 010-2691-1883  
(관리자 : 010-9480-1564)

## 모든품종 감귤(묘)분양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 레드향 1~5년생

- 사라향 • 탐나는봉
- 윈터프린스
- 황금향 • 카라향
- 천혜향 • 하레조생
- 미니향 • 레몬
- 탈라향 5년생(화분)
- 궁천 • 일남일호
- 유라(1~5년생)
- 천전(가와대) 조생

※ 신품종 다수보유

## 서귀종묘

064-733-7005, 010-6677-5753

## 감귤요목

유라조생	2,3년생	아스미	6년생
한라봉	2,3년생	황금향	2년생
궁천	3,5년생	하레조생	4년생
레드향	2,3,5년생	레몬	4년생
천혜향	2년생	맹자묘목	2,3년생
하늘	4,5년생	그외 다수	

최대규모 · 최고경력 · 건설육묘 35년

## 석파농산

서귀포시 남원읍 한라리 201-1번지

종자업등록번호 제주18-2003-20-08

# 010-2699-2355